KCC, 창호 탄소성적표지 인증

KCC는 국내 최초로 창호에 대한 탄소성적표지를 인증받았다.

KCC(대표 정몽진·정몽익)는 자사의 창호가 창호업계 최초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고 2월21일 발표했다.

탄소성적표지는 생산과 수송, 사용,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(CO₂)로 환산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.

KCC는 앞으로 석고보드, 라미필름, PVC(Polyvinyl Chloride) 바닥재 및 마루재도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11/02/21>